



hananimuibetop.org

부록 5e: 안식일의 교통수단

이 페이지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 [부록 5a: 안식일과 교회에 가는 날 — 서로 다른 두 가지](#)
2. [부록 5b: 현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3. [부록 5c: 일상생활에 안식일 원칙 적용하기](#)
4. [부록 5d: 안식일의 음식 — 실천적 지침](#)
5. [부록 5e: 안식일의 교통수단](#) (현재 페이지).
6. [부록 5f: 안식일의 기술과 오락](#)
7. [부록 5g: 안식일과 일 — 현실적인 어려움 극복하기](#)

이전 글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음식—준비, 계획, 필요성의 원칙이 어떻게 잠재적 스트레스 요인을 평화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같은 원칙이 시급히 필요한 현대 생활의 또 다른 영역으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교통수단입니다. 오늘날 자동차, 버스, 비행기, 라이드 셰어 앱은 이동을 쉽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네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평소의 노동을 멈추고, 계획하며, 멈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면 신자들이 불필요한 일을 피하고, 날의 거룩함을 지키며, 참된 쉼의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통수단이 중요한 이유

교통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이동이 노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물건을 나르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시장에 가는 것 등이었습니다. 랍비 유대교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관련한 상세한 규칙을 발전시켰고, 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회당 근처에 살면서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에 교회에 가거나, 가족을 방문하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거나, 병원이나 감옥을 방문하는 자비의 행위를 하려 할 때 비슷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 글은 준비와 필요성이라는 성경적 원칙이 이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신앙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안식일과 교회 출석

신자들이 안식일에 이동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입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예배와 공부를 하는 것은 힘이 될 수 있으며 당연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리즈의 **5A** 글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네 번째 계명의 일부가 아닙니다 ([관련 글 보기](#)). 계명은 노동을 멈추고,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쉼을 누리라고 명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예배에 가라” 또는 “특정한 예배 장소로 이동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누가복음 4:16). 그러나 그분은 이를 제자들에게 의무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행위는 모임이 허용되고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규칙이나 의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마가복음 2:27). 안식일의 핵심은 여행이나 출석이 아니라 쉼과 거룩함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날에 다른 신자들과 모이는 것이 기쁨과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기 위해 이동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쉼의 리듬을 깨뜨리거나 매주 장거리를 운전하게 만든다면, 집에 머물러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같은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로 가는 이동을 자동적이고 의무적인 루틴으로 만들어 당신이 지키려는 쉼과 거룩함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예배에 참석할 경우 최소한의 이동과 준비만 필요하도록 미리 계획하십시오. 집 가까운 곳에서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조직하거나, 비안식일 시간에 신자들과 교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통이나 기대가 아니라 거룩함과 쉼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계명에 당신의 안식일 실천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일반 지침

준비하는 날과 필요성의 원칙은 교통수단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 이동은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장거리 이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평소의 노동을 멈추고 우리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도 같은 쉼을 누리게 하라고 부릅니다. 매 안식일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의 쉼의 날이 또 다른 스트레스, 피로, 계획의 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다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이동을 완료하도록 미리 계획하십시오. 예를 들어 멀리 사는 가족을 방문할 경우 금요일 해지기 전에 도착하고 토요일 해진 뒤에 떠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고 서두르거나 막판 준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중 정당한 이유로 이동이 필요함을 안다면 차량을 미리 준비하십시오—연료를 채우고, 정비를 하고, 경로를 미리 계획하십시오.

동시에 성경은 자비의 행위가 안식일에 허용됨을 보여줍니다(마태복음 12:11-12). 병원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거나, 병든 자를 위로하거나, 수감자를 섬기는 일은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동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유지하고, 그것을 사교 활동으로 바꾸지 않으며,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을 인식하십시오. 이동을 규칙이 아닌 예외로 다룸으로써 안식일의 거룩함과 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 vs. 대중교통

개인 차량 운전

안식일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족을 방문하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거나 자비의 행위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운전에는 항상 고장이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료 보충, 정비, 장거리 이동은 평일식 스트레스와 노동을 증가시킵니다. 가능하다면 개인 차량으로 하는 안식일 이동을 짧게 유지하고, 차량을 미리 준비(연료와 정비)하며, 거룩한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로를 계획하십시오.

택시 및 라이드셰어 서비스

반대로 **Uber, Lyft**, 택시와 같은 서비스는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용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이므로(출애굽기 20:10), 네 번째 계명의 “다른 사람을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지 말라”는 금지를 어기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소하거나 가끔의 일탈처럼 보여도 안식일의 의도를 약화시키고 당신의 신념에 혼란된 신호를 보냅니다. 성경의 일관된 패턴은 미리 계획해 거룩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버스, 기차, 페리는 택시와 라이드셰어와 달리 정해진 일정으로 운행되며 당신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 특히 직접 운전하지 않고 신자들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자비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식일에 돈을 다루지 않도록 티켓이나 교통카드를 미리 구입하십시오. 이동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정차를 피하며, 이동 중에도 경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여 날의 거룩함을 보존하십시오.